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

2020.5.28. 14:30
산업은행 본관 7층

축 사

2020. 5. 28.

금 융 위 원 장
은 성 수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뜻깊은 출범을
축하합니다.

국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쉽지않은 자리를 흔쾌히 맡아주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이 차질없이 출범되고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까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금을 운용할 실무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도
지난주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채권의 발행과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숨가쁜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야 하는 만큼,
그 노고에도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 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두달여간 175조원 + @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 중 40조원을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기금운용을 위해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주신 국회에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기금운용심의회 의 중요성과 당부 말씀

기금운용심의회는 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고
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총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국회, 정부 등 각 기관에서 추천된,
경제와 산업,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관련 분야 경험도 매우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합심하여 조성한 기금이
실기(失期)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은 40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조성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규모로 공급되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입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timing, 충분성, 고용안정 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상충될 수도 있어,
합리적인 조화, 균형을 찾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지혜와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기금의 설립 취지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정책금융 등과 함께 금융지원 협업체계가
빠른 시일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지원이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기금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있는데,
이 기금은 특혜가 아니며,
따라서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틀 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살린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바람 속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씨인 기간산업이
다시 열렬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기금운용심의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